

총선의 2배... 대선 사전투표 '열풍'

<2016년>



투표소 '복직'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투표소에 인근 전남대학생과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서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선택 2017' 대선 D-4

대통령선거로는 사상 처음 실시되는 제 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남의 투표율이 16.7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의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뜨겁다. <관련기사 2·3·4·5·6면>

사전투표 참여 열기는 9일 본선까지 포함한 전체 투표율을 견인하면서 19대 대선 전체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서는 첫날 사전투표율 등을 감안할 경우 역대 최대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광주 투표율은 15.66%, 전남 투표율은 16.76%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현재까지 광주는 선거인 116만6901명 중 18만2738

명투표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16.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구 16.26% ▲서구 16.13% ▲북구 15.88 ▲광산구 14.36% 순이었다. 전남은 선거인 157만2838명 가운데 26만3591명이 투표했다. 곡성이 21.13%로 가장 높았고, ▲장성군 19.27% ▲나주시 18.93% ▲강진군 18.77% ▲구례군 18.75% 순이었다. 여수시와 고흥군은 각각 15.23%, 15.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일 첫날 전국 평균 투표율은 11.70%이며, 전남 사전투표율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세종이 15.87%였으며 다음이 광주다. 전북도 15.06%로 4번째로 높았으며, 이어 경북 12.77%순이었다.

대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텃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광주와 전남지역 최종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4·13 총선 사전투표율인 광주 15.75%, 전남 18.8%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하면서 오는 9일 선거일까지 포함, 이번 광주·전남지역 대선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소는 광주가 95곳, 전남이 297곳이며,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 1위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전략적 표를 몰아줄 것"을 호소했고, 국민의당은 "진보와 보수" 이념 대립도 계파 패권주

의도 아닌 새로운 정치, 미래를 여는 정치를 위해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과반의 압도적 승리로 안정적 국정개편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 선두에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앞장 서 달라"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의 '걸어서 국민 속으로'에 발 맞춰 광주·전남 선대위로 오는 9일 선거일 전날까지 4박5일 120시간 일정으로 '걸어서 시민 속으로, 333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333은 안 후보의 기호인 '3번'과 호남지역 목표 득표수인 '300만표', 하루 보행 목표인 '3만보'의 합성어다.

시당 관계자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의 전폭 지지로 거대 양당체제에 새 바람을 일으켰듯 19대 대선에서도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코스피 2,241.24 새역사

34년 만에 사상 최고... 외국인 매수세 견인

한국 경제에 봄은 오는가. 코스피가 4일 6년 만에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증시 전문가들도 삼성전자의 사상최고가 행진에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지속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올해 2,3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57포인트(0.97%) 오른 2,241.24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1년 5월 2일 세운 증가 기준 역대 최고치(2,228.96)를 12.28포인트 차이로 경신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2,240선마저 넘어섰다.

외국인은 364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3천335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708억원 매도우위였다.

시총 1위 대장주 삼성전자의 사상최고가 행진도 지수 상승에 탄력을 더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보다 1.38%

오른 22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SK하이닉스(0.90%), 현대차(0.66%) 등 상위주가 동반 상승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탤다.

이날 대부분 업종이 활짝 웃었다. 운수장고(2.03%), 화학(1.82%), 비금속광물(1.64%), 기계(1.38%), 서비스업(1.37%), 전기·전자(1.34%), 은행(1.28%), 증권(1.17%)이 올랐다. 하락한 업종은 통신업(-1.72%), 철강·금속(-1.25%), 전기·전자(-0.63%) 등 3개 업종뿐이었다. 이날 550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고, 240개 종목은 하락했다. 75개 종목은 보합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동반상승, 63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장보다 8.68포인트(1.39%) 오른 635.11에 장을 마쳤다. 나흘 만에 반등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대선 투표 캠페인... #나는_투표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과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해서”

인도 출신 바수무쿨

인도 출신 바수무쿨(53)씨는 지난 1999년 한국으로 귀화한 뒤 2008년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비영리민간단체 유니버설문화원을 설립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워터 운영과 숙식제공, 인권보호 운동 등을 벌이며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그는 아직도 한국에서 인종차별로 고통을 겪는 이주민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주민과 그 2세대들이 교육과 취업 등에서 편견과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바수무쿨씨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투표 참여 이유를 “국가의 안전과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8세 청소년들 모의투표

“우리도 대통령 뽑아요” ▶6면

新 팔도유람 - 경남

제 59회 밀양아리랑 축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품격있게, 지능적으로

The New E 400 4MATIC.
Masterpiece of Intelligence.

중앙일보 2017 올해의 차
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17 올해의 수입차
2016 한국품질만족지수 수입차 A/S 부문 1위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전시장 광주 전시장 (062)226-000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동) 홈페이지 www.gjbenz.com
서비스센터 화정센터 (062)376 256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동) 소촌센터 (062)942 72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등대로 603번길 20

정비 표준 연비 및 세금
E 400 4MATIC (배기량:2,996cc, 공차중량:1,910kg, 자중9타, 복합연비:9.0km/l (도심연비:7.9km/l, 고속도로연비:11km/l), 등급:5등급, 복합CO2 배출량:195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